의료선교의 달에 나누는

네번째 이야기

케냐에서 배운 '겸손한 의사'

의과대학 주관예배

- 최원규 선교사 (의료선교센터)
- 11월 25일 (수) 오전 8시
- 온라인 (접속방법: 원목실 문의)

세브란스 기독인의 날

- 동문선교사와 나누는 삶과 사역 이야기
- 11월 25일 (수) 오후8시
  - COVID-19 시대의 사역
  - 소아청소년과 김문규 교수
  - 홍** 선교사
  - 박경남 선교사
- Zoom (회의 ID: 663 333 0054)

Mission Talk

- 함께 나누는 선교 이야기
- 11월 28일 (토) 오후 7시
- 온라인 (접속문의: 의료선교센터)
- 주최: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고신의료원, 예수병원, 샘병원, 이화의료원, 원주연세의료원, 연세의료원



선교지에 가면 주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고, 가르치는 것보다는 배우는 것이 더 많습니다. 2014년 1월 연세의대의 의료선교 실습 과정으로 케냐 Tenwek 선교병원에서 4주 동안 실습을 한 하현수 학생의 글입니다.

"내가 경험한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의사들의 겸손 함이다. 70대 노인환자가 회진 중인 주치의 마틸다 선생을 불러 자신이 읽은 성경구절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환자의 말을 듣는 마틸다의 표정에서는 지겨워하거나 '바쁜데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하지?'하는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오히려 즐겁게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마틸다에게는 정말로 배울 점이 많았는데, 환자들 앞에서 겸손하다는 것이다. 권위주의도 없었고, 환자뿐만 아니라 학생들과 전공의들에게도 항상 친절히 대했다.

Tenwek 선교병원 의료진에게 느낀 겸손 함은 단순히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질병 앞에서, 환자들의 운명 앞에서도 겸손했다. 그들은 회진 중이나, 회의를 할 때도 환자들을 위해 기도했다. 짧은 실습기간으로 그들의 마음을 전부를 읽을 수 없었지만, 아프리카에서 만났던 의사들은 상태가 나빠져가는 환자를 보면서 진심으로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들의 회복에 대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

환자들의 아픔에 대해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이 non-professional 한 것이라고 생각이 바뀌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들의 아픔을 슬퍼해 주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다시 돌아온 일상에는 힘든 삶이 기다리지만 마틸다처럼 환자들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신앙과 성품을 가진 의사가 되길 바란다는 생각을 가진다."

의료원은 사람을 세우는 의료선교를 지향합니다. 변화된 사람만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전 세계 방방곡곡에 변화된 사람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